

4차 산업혁명시대 맞는 해상교량 발전방향 모색

익산국토청-한국수자원공사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 유관기관 공동 주관 해상교량 합동 기술세미나 개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철홍)은 오는 13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 역분부(경기 과천시)에서 관련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해상교량 합동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세미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해상교량의 유지관리기술의 현재와 미래'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진흥원 소속 전문가와 관련 전공 대학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김강문 사무관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특수교량리센터 박성우 총괄 운영팀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해상교량 적용 실태 및 계속정보 활용'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KAIST 정형조 교수는 '국내의 드론 기술의 발전 현황'에 대해, 다쏘시스템 변성준 컨설턴트는 '국내외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현황'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발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참석자들 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해상교량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과 미래 해상교량 정책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익산국토청 임배석 도로시설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해상교량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교량 합동기술 세미나는 지난 2011년 정부와 학회, 학계, 시공사 등 국내 해상교량 기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수한 기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추수 앞둔 벼 농가에 방제 주력 장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관내 1만1,080ha 벼 재배면적에 대한 병해충을 예방한 결과 세균성 벼알마름병이 발생해 방제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실시한 농업기술센터 벼 병해충 정밀 예찰 결과에 따르면 벼멸구, 흰등멸구, 흑병나방 등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래해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세균성 벼알마름병 및 불임증상이 산발적으로 발생·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6월 전후에 이앙한 논에서 산발적으로 20~60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비료성분이 많은 논에서 발생정도가 심하고, 심한 경우에는 등숙이 중단되어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꽃꽂히게 서있고 연한 핑크빛을 띠다가 검게 변하면서 벼 이삭이 말라 죽기도 한다.

세균성 벼알마름병은 출수가 이후에 발생하는데 비원에 피해를 줘 수확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외관미용 및 쌀 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된다.

발병 원인은 출수가의 고온과 잦은 강우이며, 출수가 최저기온이 23°C 이상으로 높고 강우 일수 및 강우량



이 많으면 발생이 심하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관수된 논을 중심으로 세균성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제약을 살포할 때는 병원균에 오염된 물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세균성 벼알마름병은 세균성 종자 및 벼짖에서 전염하는 병으로 화학적 방제에 의한 효과보다는 파종 전 종자처리에 의해 병원균 밀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병이 걸리지 않은 논에서 채종하여 종자로 사용해야 하며 종자 선별 시 소금물 가리기 및 냉수온탕침법으로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종자 발아 및 육묘관리에 있어서도 병원균의 생육적온이 30~35°C인 점을 감안하여 되도록 30°C 이하에서 육묘하도록 하며 질소질 비료를 적당량 사용하면 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시민과 함께 하는 관광산업 발전 기대

관광두레 사업의 정보·성과 교류의 장 해마다 개최 6개 관광두레 사업체에 100여명의 주민이 참여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경북 안동 일대에서 개최되는 2018 관광두레 전국대회에 군산시 관광두레 사업체 주민 20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관광두레 전국대회는 전국의 관광두레 참여 주민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각 관광두레 사업의 정보 및 성과 교류의 장으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2018 관광두레 전국대회는 주민지 PART 2, 우리두레 시간여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관광두레 참여주민과 PD 멘토 등 약 1,000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지역관광 상품에 대한 간접체결과 이해를 돕는 관광두레 주

민여행상품 체험, 우수 주민사업체의 상품 전시 및 팝업스토어 체험 퍼포먼스와 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각 주민사업체 간 소통의 시간으로 채워진다고 밝혔다.

김영섭 관광진흥과장은 "관광두레 전국대회는 전국의 관광두레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성장과정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에 이룰 시민들의 역할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산업의 변화와 발전 방안 모색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법인체를 만들고 숙박,



음식, 기념품 체험 등의 관광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내는 사업으로, 군산시의 경우 이화숙 관광두레 PD를 선정해 2013년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췌문백토리 매직, 블루씨어터, 군산뽕, 수 협동조합, 꽃밭다 선유도어촌협동조합 등 6개 관광두레 사업체에 1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서울 은평구에 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

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이어 친환경농산물도 대한민국 전역에 수출을 시작하게 됐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산지 기초자치체로 선정되면서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은평구 소재 어린이집(284개소/11,368명), 지역아동센터(26개소/716명)·복지시설(51개소/3,006명) 등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와 산지 기초자치체에서 1대 1로 매칭해 산지 기초자치체에서 조달 가능한 신선한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을 직거래로 납품하는 사업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헌을 익산시장,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정헌을 익산시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2018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 시장 외에도 우원식·정우택 국회의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등이 함께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민선 6기 4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모범이 되는 지자체를 표창하고 홍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상이다.

익산시가 이번에 응모한 분야는 지역 사회복지 분야로 이미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3관왕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평가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조기 완료 ▲여성과 아이가 살기 좋은 기반 구축 ▲어르신이 존경받는 효 문화도시 조성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도시 조성 등의 시책이 시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이번 자치발전 대상 수상은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과 의회 공직자가 함께 소통하고 열정을 다해 얻어진 결과라 더욱 뿌듯하다"며 "민선 7기에도 6기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가족태교뮤지컬 '비커밍 맘 갈라콘서트' 개최

익산시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여성가족진흥회도시 조성 공모사업)인 가족태교뮤지컬 '비커밍 맘 갈라콘서트 II'를 오는 13일 슬리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1부 공연은 임신 출산을 준비하거나 육아중인 가족,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제 사연소개를 공감과 힐링의 노래를 함께하며 만남과 결혼, 출산, 육아의 과정을 통해 진짜 엄마, 아빠로 성장하여 가족을 완성해나가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2부에서는 송태희 맑은샘 태교연구소

장기 행복한 부모 & 영재아이 만들기'라는 주제로 부모와 아이의 공감 커뮤니케이션, 행복한 부모의 중요성, 영재아이 만드는 비결에 대해 특강을 펼친다.

또한 부대행사로 출산장터 그림 및 가족사진 공모전 작품 전시와 참가자들을 위한 샌드위치와 간식이 제공된다.

태교뮤지컬 관람은 무료이며, 임신부와 그 가족, 예비부부, 미혼남녀, 일반가족 등 누구나 선착순 200명까지 참석 가능하고 참가 희망자는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852-533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드림페스티벌' 대성황

5일간 약 6000여명 공연 관람 2250여명 체험프로그램에 참가

전북도와 군산시가 주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한 2018 군산근대역사문화사 박물관 집중상설공연 '드림페스티벌' 공연이 지난 8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야외특설무대에서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군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오후 8시에 진행했으며 타악연주 동남풍의 여는 마당(사물놀이)과 군산시민오케스트라의 '군산! 하나되어, 희망의 노래하다'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공연들을 선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아트 체험 행사로 ▲행잉 만들기 ▲비즈 팔찌 만들기 ▲젤칸들 만들기 ▲슬라이드 만들기 ▲레진아트 만들기 ▲CD펜활용 체험 ▲허비티움 만들기 ▲한지로 만드는 인테리어 소품 액자 만들기가 무료로 진행됐으며, 모든 재료가 조기에 소진되는 등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드림페스티벌에는 5일간 약 6,000여명이 공연을 관람하고 2,250여명이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군산시민과 군산 역사지구 방문한 관광객이 1,000여의 관람석을 빼곡히 채웠으며 6일에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



고서 끝까지 공연을 즐기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흥송광 추진단장은 "이번 집중상설공연 <드림페스티벌>을 통해 폭염에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군산만의 독특하고 수준 높은 공연 예술로 희망의 메시지와 즐거움을 제공했으며 참여한 군산지역 예술단체는 많은 관람객과 소통하며 더 높은 수준의 예술작품을 재생산해 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별빛마당 상설공연은 군산수송공원, 은파호수공원 물빛공연장,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9~10월까지 주말마다 열리며, 거리퍼레이드공연 '최시대 감 남시오는 매주 토요일 진포해안테마공원에서, 시장 버스킹 공연도 공설시장 청년몰에서 계속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